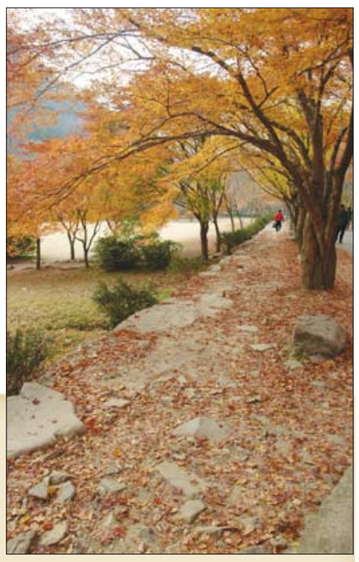
버리다보니 저리 고운 색이 남았네

내장사 대웅전.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6 내장산 내장사


삼바실 마을(사진 위)과 내장사의 단풍.

골짜기가 깊어 내장과 같다는 내장산
굽이굽이 물든 단풍 사람들 감탄 자아내

"와아마 징그랍게 좋네이잉."

앞서가던 아주머니 일행 중 누군가가 뱉는 말이다. 좋아도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징그럽게 좋다'는 역설이라야만 단풍 든 내장산 풍경을 조금은 말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와보지만, 올 때마다 새롭고 올 때마다 감동이 더한다. 단풍 든 길 한 구석에 단풍 든 얼굴로 곶감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다.

"순창 꼬치장(고추장) 마을, 꼬치장 동네 산당께. 차 시(세) 번 타고 왔어. 한 줄에 삼천 원짜리가 두 줄에 오천 원. 진짜 싼 지 알어. 감 딴 일 생각하면, 진짜 싸. 근디도 싼 지를 몰라."

많이 팔았냐고 묻자, "인자 개시여"라고 한다.

"차 세 번 탔다면, 차비도 만만하지 않겠네요?"

"차비도 많이 나오제. 차비를…" 하고는 잠시 말을 끊더니, "우리 동네 아줌마 차로 같이 왔당께. 일테면 거기도 꼬깜(곶감) 장시 왔당께."

노인의 주름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나이를 겁나 많이 묵었다'는 박순덕(85) 할머니. 할머니를 거들어 잠시 곶감 장사를 한다. 나의 호객행위 탓은 아니었겠지만, 마수걸이를 하게 되자, 할머니는 그 공을 온전히 내게로 돌린다.

"고맙소. 고마와. 덕분에 폴았오."

할머니의 덕담을 뒤에 두고 일주문을 향해 걷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단풍이 들어 들떠있다. 일주문 지나 한참을 걸어도 다른 건물은 나오지 않는다. 골짜기가 깊어 내장(內藏)과 같다는 내장산. 굽이굽이 물든 단풍의 색은 갈수록 깊어져서 입에서 사람의 말을 지우고, 마침내 탄성만 남게 한다.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왕래하는 경우도 있다. 택시비는 5000원을 받는데,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을 묶어서 태운다. 세 계단을 오르면 천왕문이고, 문 안쪽이 바로 부처의 세계다.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삼층석탑이 중심에 있고, 연지봉에 기대어 대웅전이 자리했다. 대웅전 왼쪽에 극락전이 있다. 극락전 뒤로는 써래봉이 우뚝 솟아있다. 극락전은 서쪽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 지운다.

단풍 든 잎은 지고 나서도 눈부시다. 사람들도 단풍잎처럼 가볍게 걸어 다닌다. '단풍 든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실 단풍은 새로운 색을 받아들여 물이 드는 게 아니다. 단풍잎은 제 몸 속의 일부 색을 버린 후의 모습이다. 즉 초록색 엽록소가 파괴되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다른 색소들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단풍이다. 비우고서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단풍에게서 배운다. 버리고 버리다보니, 단풍은 저리 고운 색으로 남은 것이다.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얻을까'하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계절이다. 수많은 씨앗들이 우리에게 와 양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어느새 첫눈 소식이 들리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나보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다 버리고 다 주고 나서 아름다워진 부처님 앞에 절을 한다.

오후가 깊었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는다. 길에서 벗어난 곳에 고요한 풍경이 있다. 적당히 쓸쓸하다. 더러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단풍과 떨어져 뒹굴고 있는 단풍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쓸쓸함이 참 맛나다는 생각을 하며, 단풍잎처럼 가만히 쪼그려 앉는다. 번잡한 인도와 달리 적막하기까지 한 뒤안길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다. 멀리서 한 사람이 이 고요 속으로 든다.

고요에서 소란으로 걸음을 옮긴다. 사람 사는 모습은 역시 소란 속에 있다.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삼바실 마을.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선다. 사람이 많아 장사가 잘 되지 않느냐고 하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

"올해는 줄었지, 단풍이 늦어서. 작년엔 20일에 시작했다면, 올해는 27일에 시작해서."

단풍이 언제 시작되었다는 날짜까지 기억하는 이명호(60)씨다.

"단풍이 참 좋네요" 하였더니, "올해 단풍이 좋고, 단풍이 안 좋을 때는 비가 안 왔을 때, 물기 없으면 나무가 마르죠. 그러면 잎싹이 다 떨어져불고."

나무 전문가가 따로 없다. 식당의 규모는 밖에서 생각했을 때보다 크다.

"가을철 아니면 150석이 뭐 필요 있어요. 가을 아니면 한 30석이면 충분하죠. 작년에는 오십 몇 만, 재작년에는 육십 몇 만. 그 전에는 150만까지 왔다고 그래요. 1990년대에는 15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 떨어졌지요. 그때는 가을 한 철 장사해 묵고 산다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기념품만 해도 전에는 여기서 다 사갔는데, 지금은 정읍 시내만 가도 내장산 내장사라고 다 찍어줘 부러. 그랑께 여그서 사가들 안 해."

마을 내력에 대해 잘 안다는 김상규(72)씨를 찾아간다. 아저씨는 외출중이고, 가게를 지키고 있던 김종례(67)씨와 말을 나눈다.

"사찰서 조금 내려와서 마을이 있었어. 가게도 꾸미고 살다가, 우화정 우게(위)는 원래 있던 곳이고, 우화정 아래는 동구 마을이 7~8세대 있었는데, 관광객이 늘면서 상가가 형성 됐제. 그라다 1979년에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이리 내레왔제."

절 가까이에 있던 동구마을은 절이 생겼을 때부터 있었을 것이라 한다. 현 상가 건물이 있는 삼바실에는 주막집 하나가 있었다.

"여그는 저 사거리에 집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술집. 그랑께 주막집. 여그가 순창 넘어가는 길이에요. 복흥, 순창 넘어가는 길."

단풍나무 길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람의 옷도 단풍이 들었고, 오가는 차들도 단풍이 들었다. 애기 단풍잎 같은 그리움 하나를 가슴에 담는다. 더 버려야 나도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정읍=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내장산 산신령으로 불리는 사나이

산에 빠지고 산에 미친 이기영씨

1995년까지 내장산을 5000번 넘게 다녔다는 사람. 그 후로는 셀 수가 없어서 몇 번을 갔는지 잊고 지낸다는 이기영(71 · 사진)씨는 내장산 산신령으로 통한다. 오죽 산이 좋았으면, 잘 되던 치과 병원을 폐업하고, 내장사 경내에 방을 얻어 살기도 했을까.

"등산 못 가더라도,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가요. 그냥 등산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기 위해 다녔어요. 그래 내장산에서 8개의 샘을 찾았어요. 써래봉 뒤 써래약수라고 사슴 목장 가기 전에 약수가 나와요. 옛날에는 내도솔, 외도솔해서 암자가 있었는데, 써래약수 있는 곳이 외도솔암이 있던 곳이라 봐야지요."

물을 어떻게 찾는지 물었다.

"옛날 나무로 숯 만들죠? 숯구뎅이(숯구덩이) 만들 때, 구뎅이 파 묻고, 불 끄기 위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구뎅이 있는 데에 숯구뎅이를 만들어요. 숯구뎅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죠. 인위적으로 팠기 때문에 소쿠리 같이 패여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숯구뎅인줄 알죠."

내장산은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과 이성계의 영정을 모신 용굴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에 의하면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을 보관한 곳이 용굴만은 아니다.

"용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레암이라고, 영취봉에서 까치봉 넘어가는 능선이 있는데, 까치봉 가는 지점에서 우측 계곡 가면, 와이 자 형이 나오는데, 좌측이 암자 터고, 우측 가면 암상 계곡이 있어요. 거기를 약 10미터쯤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면 비레암 터에요. 이성계 영정 모신 곳이죠."

누구보다도 내장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이지만, 처음 내장산과 인연을 맺은 내력이 특이하다. 한국전쟁때 폭격기들이 내장산 일대를 폭격을 해댈 때였다. 실제로 본 내장산은 처참했다.

"처음 갔을 때 내장사 대웅전 기왓장만 남았고, 암자 사찰 50군데 있었는데, 싹 불타고 없었어요."

그때부터 내 고장 산을 알고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아픈 현대사가 그를 내장산 산신령으로 만든 것이다.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 출시!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특별할인가격 79,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발아치 보강 기능
- 체중 분산기능
- 충격 흡수기능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업계최초! 일우베스트
웰빙 근적외선 히터
혹불제 판매!! 지로할부

망설이지 마세요
뛰어난 품질, 완벽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는 후불제 판매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근적외선 히터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부담없이 4, 5회 나눠서 결제

선택하세요
국내산 근적외선 램프장착, 2중 안전장치, 난방비용 절감에 건강까지 챙기세요.

6無
- 눈부심
- 무독
- 무취
- 무연
- 무소음
- 난방사각지대

【스탠드형】
- 용량(W) : 220V/60Hz 1,8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회전
- 상하 각도 조절 기능
- 타이머 기능 : 약 7시간 30분시간
- 높낮이 조절기능 : 20cm
- 최첨단 안전장치
- 리모콘 조정
- 전도 안전장치 채용

▲스탠드형 : 248,000원
지로할부가 : 56,000원×5회

【벽걸이형】
- 용량(W) : 220V/60Hz1,8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회전
- 상하 각도 조절 기능
- 타이머 기능 : 7시간 30분
- 3단조절 기능 : 까칠/강/약
- 리모콘 조절 방식

▲벽걸이형 : 198,000원
지로할부가 : 46,000원×5회

【좌석용】
- 용량(W) : 220V/60Hz 1,000w
- 무 게 : 약3.0kg
- 기계식 3단조절 기능 : 까칠/강/약
- 회전기능 : 좌우 90도 회전
- 상하 각도 조절 기능
- 타이머 기능 : 최대 3시간
- 높낮이 조절기능 : 16cm

▲좌석형 : 178,000원
지로할부가 : 50,000원×4회

난방비용 90%절감,
한달전기료 35,046원- 하루 10시간기준
후끈 후끈 초강력 난방!

- 최고 90%이상 비용절감
- 난방비의 손실이 없다. (0.1초 순간 가열방식)
- 건강 웰빙 난방 (무연,무취,무소음,무독)
- 국내제작 2년간 품질보장

지쇼는 기름값!! 난방비 걱정 끝! 난방비를 확~ 줄여줍니다.

최고 90%이상 난방비 절감 (유류대비 : 1일 10시간기준×30일 약 10~15평형기준)

구분	월사용량	단위가격	월난방비	비교지수
등유	480ℓ	약 1,150원	약 552,000원	100%
가스	220kg	약 654원(환절기)	약 143,830원	75%
근적외선히터	540W(일반절전기)	약 64.9원	약 35,046원	약10%이하

▶지로할부

스탠드	248,000원 ➡ 56,000원 ×5회	280,000원
벽걸이	198,000원 ➡ 46,000원 ×5회	230,000원
가정용	178,000원 ➡ 50,000원 ×4회	200,000원

※할부는 신용에 문제가 없으신 분에게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런곳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사찰 · 지하사업장 · 애견센타 · 관공서 · 자동차정비소 · 학원 · 병 · 의원 · 체육관 · 골프연습장 · 가정 · 요식업체 · 산후조리원 · 유치원 · 사무실 · 지하상가 · 피부관리실 · 노래방 · 음식점 · 포장마차 · 이 · 미용실 · PC방 · 옷가게 · 연구소 실험실 · 교회 · 공장 · 오락실

제조원 일우베스트 ILWOO BEST Co., Ltd.
주문 상담 080-307-3070
농 협 935-12-355423 박 정 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mℓ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